

이재명 대표,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 전면에 내세울 듯

오늘 오후 첫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는 차담 내용 '주목'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중점 채상병 특검 수용도 요구

취임 후 첫 영수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의제 제한이 없는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정해진 의제가 없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오만한 형식에 비해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이 대표는 '백화점식' 의제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생 분야에서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고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이 부정적이지만, 이 대표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았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대표 첫 회담 개요



장소 용산 대통령실
날짜 및 시간 4월 29일 오후 2시(약 1시간)
형식 자유회담 형식, 의제 제한 없는 차담(차별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
배석자 각 3명씩



민주당 측 예상 회담 제안 내용
총선민심반영 및 대통령 회담 기대
민생 회복 조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압박
의정 갈등 여야 정부-의료계 참여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국정기조 전환 민생법안 등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및 주요 특검 수용 촉구
기타 김건희 특검법 언급 여부 거부권 행사법안 관련 유감 표명 및 대통령 사과 요구 등 주목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지점이다.

우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

병 사안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이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회담 실무협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거부권 행사 자제 촉구로 갈음할 수도 있고, 가족 관련한 범죄 혐의에 엄격해야 한다고 하거나, 직접 수용을 촉구할 수도 있다"며 "다만 확실한 총선 민심 전달 차원에서 선명하게 언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언급할 의제를 확정할 건 아직 아니며 이 대표가 계속해서 고심 중"이라며 "대본이 짜여있는 것도 아닌만큼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언급될지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참패 국힘,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전대 준비 관리형 임기 두 달 제한적 권한에 중진들 '고사'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정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이다.

윤 권한대행은 일부 낙선한 중진 의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한 4선 이상 중진은 박진, 서병수, 홍문표, 이명수, 김학용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에서 낙선한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 의원은 최근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과 관련한 논란도 중진들의 비대위원장 수락에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진운(진운석열)계와 비운(비운석열)계, 수도권 과비수도권 그룹이 전대 틀 변경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리형이라는 한계를 가진 비대위원장으로선 당내 이견을 조율해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내에선 윤 권한대행이 당선자 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책임자가 없다'며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공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엔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을 수습하려면 어떻게든 비대위원장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권한대행이 물밑 조율을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 윤곽을 정했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안철수 "총선 참패 원인 제공 핵심관계자들 성찰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차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당후사를 위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담아가기 위해서 전당대회 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고 위기에 빠진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후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짚잡이'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친환경 인증 보일러라서~

안전에 안전을 더해서~

귀뚜라미 콘덴싱보일러 잘 쓰고 있습니다

26년 연속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파워 1위 (1999 ~ 2024)

가스비 걱정 없고~

7년 연속 소비자 추천브랜드라서~

www.krb.co.kr | 제품문의 1588-9000

Kiturami